

열악한 숙소엔 아파도 제대로 못 쉬고...참담한 타향살이

‘우리의 또다른 이웃’ 광주 외국인노동자의 삶 보니

캄보디아 출신 30대 여성 외국인노동자가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파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당시 비닐하우스에는 난방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빚졌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광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이라는 책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역사민속박물관측은 광주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팔·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필리핀의 외국인 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현지 조사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실태 책자를 발행했다.

심각한 고령화와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광주·전남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적

바퀴벌레 득시글 비위생적 기숙사 숙소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시키기도 조퇴·휴가 업무 못내고 격무 시달려 인권·복지 차별없게 관리감독 필요

극적인 생활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물 새는 부엌,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까지 떠넘기기도=책 속에 담긴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은 참담하다. 회사측이 제공한 기숙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많고 그나마 일부 회사측은 숙소를 제공한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리아즈 씨는 “공장 내 기숙사의 작은 방에 3명이 머무르는데 기숙사·식비로 매달 35~40만원을 회사측에 떼간다”면서 “그런데도 불을 피우는 게 위험하다며 요리도 금지해 별도 식

사 비용으로 30~40만원 가량 든다”고 했다.

네팔 출신 라즈기리씨는 “부엌에서 물이 새는데도 고치는 데 들어간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했고 몽골에서 온 강바야르씨도 “공장측이 제공한 기숙사에는 바퀴벌레까지 돌아다니고 에어컨도 고장이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기숙사가 열악하다보니 별도로 숙소비용을 부담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조퇴도, 휴가도 못 내는 노동현장= 광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페인트제조·창문세제·제약·박스제작·오피스 의자 제작·전자제품이나 유리 제작 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노동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으로, 힘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휴가 등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몽골에서 온 노르브준텐씨는 2년 넘게 박스 공장 에서 근무하면서 휴가·조퇴는 업무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출신 기리데비씨는 8개월째 식도염을 앓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기계가 작동하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으며 여태껏 한 차례도 휴가를 가지

■광주시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명)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 않은자					한국국적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취득자	자녀(출생)
전체	4만3053	7312	3635	6156	2944	1만3239	3297	6470
동구	2968	185	156	1245	81	906	121	274
서구	3788	513	478	96	222	1123	460	896
남구	3263	239	402	484	125	902	322	789
북구	9700	807	1035	1974	339	2769	890	1886
광산구	2만3334	5568	1564	2357	2177	7539	1504	2625

〈출처:행정안전부(2020)〉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윈스턴씨는 작업을 하다 손등에 뜨거운 알루미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지만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치료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흥관희 노무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복지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박물관이 이주노동

자의 경제적 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노동자 20명 중 13명이 160만~280만원까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임금 체불 상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고백한 노동자도 있었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서울에서 일할 때는 230만원 받았지만 광주에서는 180만원만 받고 일한다며 열악한 임금 수준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광주 거주 외국인 주민은 4만30653명으로 광주 인구의 3%에 달하고,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312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이 잦아간 ‘청춘의 꿈’

피부관리숍 오픈 한달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 조사도 못해

“동생이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이틀 뒤에 동생이 주문한 향초가 온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스무살부터 돈을 모아 준비했던 피부관리숍 개장 준비까지 끝냈는데,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떻게해요.”

지난 1일 밤 10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20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숨진 A(여·27)씨의 언니는 슬픔에 말을 잊지 못했다. 〈광주일보 1월 4일 6면〉

A씨는 이날 친구 집들이를 갔다가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하다 잠깐을 당했다. 20대 운전자는 SUV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멈춰있던 A씨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부관리숍 오픈을 한 달 앞두고 한껏 부풀어있던 A씨의 꿈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대학에서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신만의 피부관리숍을 갖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나다. 미용실, 식당·치킨 집 아르바이트 등을 다니며 창업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 6년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말 드디어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 언니는 “지난 12월 30일 오픈할 가게를 들

러보면서 얼마나 설렸는지 몰라요”라고 울먹였다.

A씨 언니는 “손님에게 나눠줄 스티커도 미리 만들었고 가게에서 사용할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 둘씩 사 오며 행복해했어”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도 한탄했다. 딸이 큰 차로 바꾸자고 했던 말을 일찍 들어줬더라면 이렇게 됐겠냐며 슬퍼했다.

A씨 가족들은 “두달 전 세상을 떠난 이모의 말동무를 하겠다며 이모댁에서 생활했다”면서 “어느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딸”이라고 말했다.

A씨 언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고 한 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음주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나”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20대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 받고 1.6km 가량 달아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그러나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가해자의 상황을 이유로 조사조차 못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 전담 치료병원 환자맞이 분주

6일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헤아림요양병원 병동에서 간호사와 직원들이 병상을 정리하는 등 이송돼 올 환자 맞이에 분주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4명 ‘경찰의 별’ 달았다

김영근 전남청 과장 등 경무관 승진

경찰청 인사...광주청은 승진자 없어

김영근 전남경찰청 경무과장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노규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김철우 인천청 수사과장·박정보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 등이 경무관에 올라섰다.

경찰청은 6일 김 경무과장 등 총경급 37명을 경

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경무관은 12만명이 넘는 전체 경찰의 77석에 불과한 최상위 층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도 불린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조직도 확대, 경무관도 기존(65개)보다 늘어났다.

한편 출신인 김 경무과장은 석산고와 경찰대(67)를 졸업한 뒤 1990년 경찰에 입문, 지난 2013년 총경으로 승진해 보성서장·광주동부서장·광주청 정보과장·목포서장 등을 지냈다.

노규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도 합평 출신으로

문성고와 중앙대를 거쳐 사시(연수원 33기)에 합격 한 뒤 경정 특채로 경찰에 들어와 2013년 총경으로 승진했고 장성서장, 서울청 광역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 출신인 김철우 인천청 수사과장도 경무관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수사과장은 대동고와 경찰대(67)를 졸업하고 장흥경찰서장과 인천청 여성 청소년과장, 인천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박정보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진도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경위로 임용(경찰간부 후보 42기)돼 2014년 총경에 올라 진도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사이버안전과장 등을 맡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 문흥본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동광주지점 264-4150